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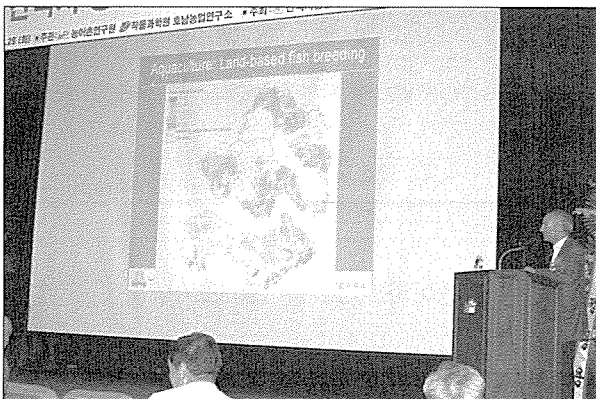
새만금 간척지 농업적 이용방안 학술강연회 개최

간척지 농업연구회 제4차 학술행사가 18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8월 29일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새만금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 네덜란드, 그리고 일본에서 총 7명의 초청 연사가 주제발표를 하였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농촌환경기술연구소의 허기술 위원은 ‘새만금 간척지를 바이오에너지 산업기지로 조성’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국제적으로 바이오에너지는 미래 사회에너지로 부각되고 있으며, 국내 실정에 맞는 바이오에너지 작물개발 및 작부체계를 구축하는 정책개발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만금 간척토지의 60-70%가 농업용으로 조성될 것이며, 새만금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본 목적인 식량생산을 위한 우량농지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촌경관과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통한 도농교류를 위한 기술과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국농촌공사 의령지사 박상현 지사장은 ‘지속 가능한 간척지 물관리를 위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국가의 산업과 인구가 연안으로 집중되는 추세에서 간척지 연안의 물관리는 농업뿐만 아니라 연안 산업과 재해예방 및 생물 종다양성 보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서 과학적이며, 자발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농업 보조금은 금후 국제적 추이를 고려하고



△연사별 주제발표



△종합토의

농업인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감안하여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호남농업연구소의 김재덕 과장은 새만금 유역 친환경적 농업환경 관리를 위해서는 경사지 토양침식을 최소화하고, 비료, 농약, 물 등 농자재의 적절한 사용을 통한 비점오염원 유출을 억제하고, 자연정화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천변 자연정화형 식생대를 조성하여 강우시 유출수에 의한 오염원 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녹지경관을 조성하는 정책과 기술에 대한 주민참여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네덜란드 와게닝겐대학의 스투트 박사는 네덜란드의 델타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유형은 지속적인 담수공급에 의한 관개농업과 바닷물을 이용한 각종 양식사업 및 호염성 식물 재배가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 같은 네덜란드의 사례를 들어 금후 새만금 간척토지의 지속적 이용을 위해서는 간척지 농업용 수자원의 공급 및 관리 책임, 농업용수 가격, 제염용수량 산정, 관개용수로로서의 사용 기준에 대한 이해 당사자간의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국농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의 신명호 연구원은 새만금 현장에서 비산먼지 대책을 수립하고자 수위관리, 토양관리, 식생관리 등의 방안 중에서 염생식물을 재배한 결과 식생을 이용한 비산먼지 저감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간척지 경관개선과 생태계를 복원하는 실증적 기술을 소개하였으며, 금후 이 기술은 토양구조발달과

제염촉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여 참가자들이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일본 관개배수위원회장을 역임한 다니야마 박사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 간척지는 농업생산이라는 기본적 기능 외에도, 홍수를 방지하고, 접근성을 개선하고, 국토 대체효과를 거양할 수 있으며, 환경적으로 논 생태계는 식생, 어류, 곤충, 조류의 서식지 제공, 질소제거기능 등 환경생태적 공익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현대 서산농장의 윤석용 대표는 서산 A, B지구 대단위 간척사업과 벼 재배현황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서산간척지에서 초기 이양재배의 실패와 건답직파, 절충형 담수기계직파, 항공기 이용 담수표면산과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서산간척지구에서 벼 담수직파재배법을 토양관리, 파종과 재배관리, 잡초방제, 시비관리, 물관리 등에 대한 영농기술을 소개함으로써 농업인 회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간척지 농업연구회(<http://sarri.hari.go.kr>)는 새만금 사업지구 등 간척지에서 농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2003년 4월 창립된 이래, 농촌진흥청 호남농업연구소와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농과계 대학 소속의 전문 연구자들은 물론, 농산업체 전문가 그리고 간척지 영농현장의 농업인 등으로 구성되어 우리나라 간척농지의 친환경적 지속개발을 위한 협력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